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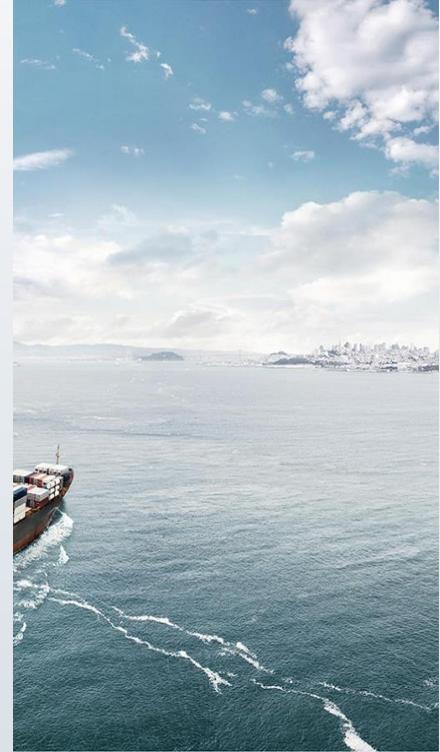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255

Updated July 02, 2019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7
- BC Sales Report	
Tankers	11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5
Key Indicators	18
STL News & Information	20
Contact Information	22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ISSUE & TREND

1. 현대상선, 세계 해운동맹에 정식가입...컨테이너 안정적 확보

현대상선이 세계 3대 해운동맹의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에 정회원사로 가입해 앞으로 10년간 안정적 화물확보가 가능해졌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배재훈 현대상선 사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 4월부터 현대상선이 '디 얼라이언스'에 정회원(FULL MEMBERSHIP) 자격으로 가입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상선은 2017년 4월부터 2M 얼라이언스와 '2M+H'라는 전략적 협력관계 계약을 맺고 미주 서안 항로에서 선복교환 방식, 미주 동안 및 구주 항로에서는 선복매입 방식의 제한적 협력을 해왔다. 선복교환 방식은 화물선 운항 시 여유 공간을 동맹의 선사와 맞교환하는 형태이고, 선복 매입방식은 한 해운사가 동맹의 다른 해운사의 여유공간을 유상으로 매입해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다. 또 전략적 협력관계에서는 얼라이언스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운항노선을 확대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현대상선이 2M과의 전략적 협력이 2020년 3월 종료 예정임에 따라 새로운 해운동맹 가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달 19일 '디 얼라이언스' 가입계약을 완료했다. 해운선사들은 세계 모든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어, 여러 선사들과 동맹을 맺고 물동량을 주고받으며 해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2M, 오션 얼라이언스, 디 얼라이언스 등의 3대 해운 얼라이언스 모두와 가입 협상을 진행해 가장 조건이 좋은 '디 얼라이언스'를 선택했다. '디 얼라이언스'에는 HAPAG-LLOYD(독일), ONE(일본), YANG MING(대만)이라는 기존회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현대상선의 '디 얼라이언스' 협력은 현행 2M과의 협력이 종료되는 2020년 4월부터 개시해 2030년 3월까지 10년간 유지된다.

이로써 현대상선은 안정적 화물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선대 확충이 가능해졌다. 현대상선의 이번 디 얼라이언스 가입은 선박 공유 등 모든 조건에서 기존 회원사들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받는 정회원사 자격이다. 특히, 현대상선이 주로 운행하는 주력항로에서는 '디 얼라이언스'가 점유율 28%로 경쟁 동맹인 '2M' 27.1%보다 앞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I . ISSUE & TREND

배재훈 현대상선 사장은 "이번 해운동맹 가입으로 현대상선은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비용구조 개선과 서비스향로 다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어느 노선에 항구를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정회원 자격으로 동등하게 협상하고 배를 투입할 수 있어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이 새로운 해운동맹 협력을 개시할 수 있었던 데는 지난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큰 힘이 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 월 초대형 컨테이너선 20 척을 발주했고, 이중 2 만 3,000TEU 급 12 척은 2020 년부터 인도돼 구주항로에 투입될 예정이다. 2 만 3,000TEU 급 선박은 전 세계 컨테이너선 중에 가장 큰 규모로 저비용 고효율의 선박운항이 가능해져 현대상선의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운항 항로와 횡수가 늘어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고효율을 활용하면 현대상선은 내년 하반기부터 적자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본다"라며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2.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1 년 해운재건 박차...해운매출

5 조 ↑

'해운재건'을 기치로 지난해 7 월 5 일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1 일 1 주년을 맞아 지난 1 년간 추진한 주요성과를 발표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1 년동안 해운재건사업을 추진한 결과 해운산업 매출액이 2018 년을 기준으로 34 조원을 기록해 2016 년보다 5 조 2 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운재건의 과제인 원양 컨테이너선 선박량은 2018 년 기준 52 만 TEU 를 기록해 2016 년보다 6 만 TEU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 같은 성과가 나타난 것은 사업환경구축과 재무구조개선, 사업기반조성에 주력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공사는 먼저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한 내규를 제정하고, 공사채발행과 보증사업을 위한 신용등급(AAA)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보증 사업을 위해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등록도 완료했다. 또 1 조 4,800 억원의 설립자본금 정부 현금과 현물출자를 완료하고,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의 보유자산 증계와 청산절차를 종료(1 조 3,500 억원)했다.

I . ISSUE & TREND

이와 함께 공사채발행을 통해 해운업지원자금으로 5,000 억원(5 년물,30 년물)을 확보하고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서공신력을 확보했다. 그리고 해운업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시스템의 자체개발을 통해 지원 선사를 13 여개사-60 여개사로 확대했다.

특히 공사설립의 주요업무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적원양컨테이너 선사를 육성하기위해 초대형컨테이너선 20 척 신조를 지원하고 국내터미널(HPNT)지분을 확보했다. 여기에다 해운환경변화에 대응하기위해 친환경 설비설치 상생펀드 450 억원을 조성했다. 또 한국해운연합(KSP)의 자율적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 장금상선과 흥아 해운의 컨테이너선 부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해운재건 5 개년 계획에 따른 국적선 컨테이너의 선복량 증가에 발맞춰 컨테이너 박스 리스금융지원에 나서 해운선사의 리스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제해사기구(IMO)환경규제에 대응하기위해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 월말 기준으로 국내 22 개 해운선사 168 척을 대상으로 황산화물저감장치(스크러버)와 선박평형수처리설비(BWMS) 설치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보증 대출규모는 모두 3,955 억원에 이른다. 관련사업의 하나인 폐선보조금 지원사업으로는 9 개선사에 모두 264 억원을 보증 대출로 지원했다. IMO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친환경 설비개량 상생펀드'도 만들어 일자리 창출 등 산업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친환경 설비개량 상생펀드는 IMO 규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자인 화주와 기자재업체, 정유업체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펀드는 화주(150 억원)와 기자재업체(150 억원), 정유업체(150 억원)등으로 구성된다.

공사는 국적선사의 유동성확보와 금융비용절감을 통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기위해 선박과 터미널 등 해운항만업관련 자산에도 투자에 나서고 있다. S&LB(*)를 통해 벌크선과 탱커선, 컨테이너선 등 9 개 선사 10 척에 대해 모두 872 억원을 투자하고, 부산신항 HPNT 500 억원 출자와 동남아 물류시설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앞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 척 등 신조선박 99 척을 발주하는 등 경쟁력있는 선박을 확충하고 선사 경영안정과 안정적 물량 확보를 추진하는 등 해운산업 재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진흥공사는 오는 5 일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 주년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I . ISSUE & TREND

3. 韓 보란 듯...中조선, 대·중·소형 조선 전폭 지원

중국이 자국 조선소에 연일 일감을 몰아주면서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고사 위기를 맞은 국내 중·소형 조선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대형 조선소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 일 중국 조선매체 월드십에 따르면 지난달 27 일 중국선박중공집단(CSIC) 산하 3 개 조선소(다롄조선·우창조선·티안진신강)는 2 조 4,000 억원(약 20 억 8,000 만 달러) 규모의 선박 24 척을 수주했다. 이들 조선소가 수주한 일감은 자국 해운선사들이 발주한 선박들이다. 이번에 수주한 선박의 종류는 원유와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를 운반하는 원유운반선과 중형 탱커, 중형 벌크선 등이다. CSIC 4 개 조선소는 자국 선사들에 13 척의 선박을 수주하기도 했다.

중국 선사들이 자국 조선소에 무더기 선박 발주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정부의 선박 금융지원 정책 덕분이다. 미국과 통상마찰을 빚으며 주력인 벌크선 발주가 줄어든 중국은 자국 국영조선그룹 중국선박공업집단(CSSC)과 CSIC 에 대한 발주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중형 및 중소 조선소들이 정부의 정책 지원 부재로 조선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이 일감 확보는 물론 선박 건조 능력까지 쌓고 있는 것이다. STX 조선해양 등 주로 한국에 선박을 발주했던 그리스 선사 오션골드는 최근 자사 최초로 중국 조선에 중형 탱커를 발주했다. 국내 금융기관이 선박 수주에 필수적인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조업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 새 주인을 찾는 등 다양한 회생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사이 중국 조선소는 중형에 이어 중대형 선박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올 들어 자국 발주 규모를 더욱 늘리고 있다"며 "중형 조선소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할 경우 다음은 대형 조선소들이 자리를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4. 유조선 피격,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유조선 피격이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방향을 제시해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5 월 12 일 호르무즈해협 의 FUJAIRAH 항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4 척이 피격됐으며 그로부터 한달 후인 6 월 13 일 호르무즈해협 인근의 오만해에서도 유조선 2 척이 피격됐다.

I . ISSUE & TREND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유조선만을 노린 계획적인 범죄로 규정했으며 미국은 이란을 배후로 주목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미국의 주장을 부인하며 미국이 중동 파병 명분을 쌓기 위해 조작한 것이며, 유조선 피격은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현재까지는 이번 피격의 배후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미국의 핵 혐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탈퇴에 이어 이란에 대한 두 차례의 경제 제재가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1990~2000년대 1·2차 걸프전쟁을 거쳐 2011년 이란 제재까지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지정학적인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원유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원유를 수송하는 해운시장도 영향을 받아왔다. 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원유교역량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원유수송로로 하루 평균 1,750만 배럴의 원유가 동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원유수입량의 약 70~80%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고 있어 이 지역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시장은 OPEC의 감산과 VLCC 인도량 증가(상반기 33척 인도, 하반기 28척 인도 예정)로 올해 2분기 평균운임(DAILY EARNING)이 9,350달러에 불과했으나 2차 피격이후 1만 달러 이상 상승해 6월 18일 기준 20,078달러를 기록했다. 런던전쟁보험자협회(JWC·JOINT WAR COMMITTEE)에서는 아라비아만 전체와 해협 인근을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전쟁위험보험료'를 부과했는데, 대형 유조선의 경우 항차 당 18만 5천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피격사건 이후 이 유조선 해운시장에 미칠 영향을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예상할 수 있는데 첫째, 이번 피격사건이 1회성 사건으로 끝날 경우이다. 이 경우 탱커 운임 상승폭은 크지 않고 수개월 안에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FFA 시장의 경우 6월물과 7월물은 각각 7,000달러와 10,000달러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9월물은 피격 이전과 이후 변화가 크지 않아 시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2개월 이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둘째, 간헐적이지만 호르무즈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격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전쟁위험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며 세계 유조선의 30%가 피격된 '탱커전쟁'과 같이 상황이 지속되면 선가의 12%까지 동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쟁위험보험료는 선가의 0.6% 수준이나 과거 이라크 전쟁 시 최고 20배까지 부과됐다.

마지막으로 과거 사례로 볼 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되는 경우이다. 1980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부터 2011년 이란 제재까지 매년 호르무즈해협 봉쇄 가능성이 언급되었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I . ISSUE & TREND

낮은 가능성으로 해협이 봉쇄될 경우 EAST-WEST 송유관과 ABUDHABI 원유 송유관으로 일부 전이가 가능하나 하루 1,750 만 배럴에 달하는 해상운송능력에는 못 미쳐 유가는 급등하고 해운운임은 수요 감소로 급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현대상선은 위험지역에 대한 우회 항해를 지시했으며 MOSK는 선박이 피격된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2 마일 이내에 자사 선박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이번 공격은 유조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과거 '탱커전쟁'의 경우와 같이 일반 상선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므로 타 선종의 항해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가능성은 낮지만 호르무즈해협이 봉쇄될 경우에는 해협 내의 선박이 운항불능상태에 빠지므로 이에 대비해 분쟁 추이를 면밀하게 관측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격사건이 단기적인 사건으로 일단락될 경우 선주들의 경계심으로 가용선박이 감소해 시황이 상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긴장이 고조될 경우 수요가 감소해 시황이 하락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시장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장기계약 형태로 노출을 축소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운임선도시장을 활용한 위험 관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피격사건이 장기화되어 우리나라 상선대가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해양수산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많은 관련 부처가 연계해 해결해야 할 난제가 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피격사건 이후 선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상황 변화에 대응하고 있으나 유사시 관련부처의 협조에 문제가 없도록 조직적인 대응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2 차 피격지점과 멀지 않은 거리의 아덴만에 해군을 파견해 해적으로부터 상선대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우발적 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우발적 상황에 대한 대응계획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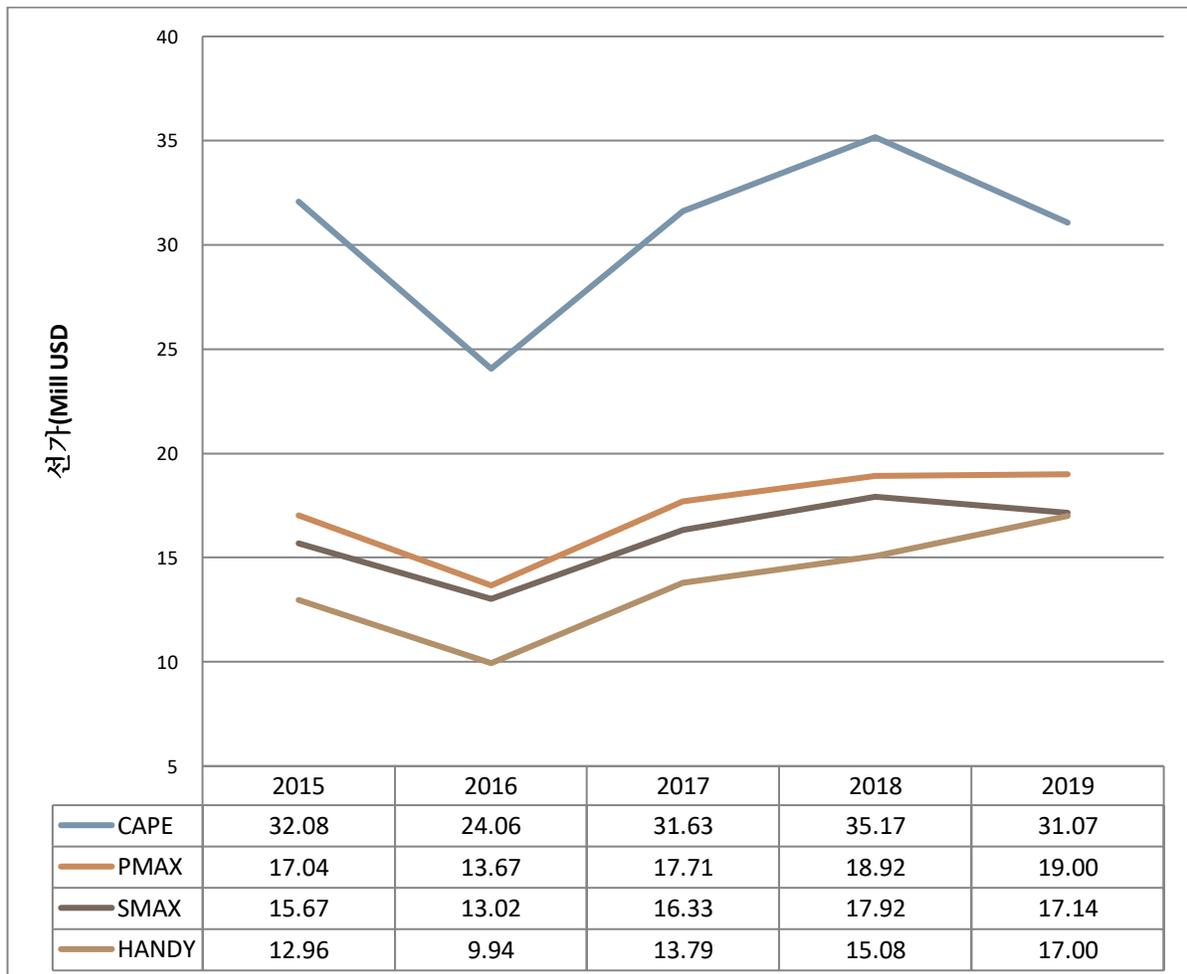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5	2016	2017	2018	2019
Capesize 180K	32.08	24.06	31.63	35.17	31.07
	-31.45%	-24.99%	31.43%	11.20%	-11.65%
Panamax 76K	17.04	13.67	17.71	18.92	19.00
	-30.16%	-19.80%	29.57%	6.82%	0.42%
Supramax 58K	15.67	13.02	16.33	17.92	17.14
	-36.04%	-16.91%	25.44%	9.69%	-4.34%
Handysize 37K	12.96	9.94	13.79	15.08	17.00
	-33.20%	-23.32%	38.78%	9.37%	12.73%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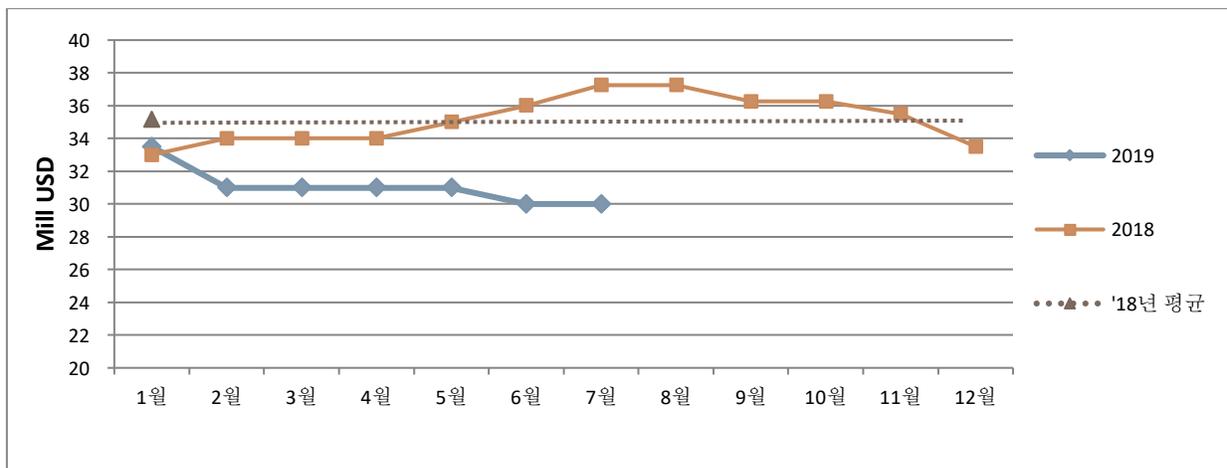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평균	
2019	CAPE 180k	선가	33.50	31.00	31.00	31.00	31.00	31.00	30.00			31.07
		전월대비	0.0%	-7.5%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1.5%	-8.8%	-8.8%	-8.8%	-8.8%	-11.4%	19.5%			-11.6%
	PMAx 76k	선가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전월대비	0.0%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7%	2.7%	0.0%	0.0%	0.0%	0.0%	0.0%			0.4%
	SMAx 58k	선가	18.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14
		전월대비	0.0%	-5.6%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9%	-2.9%	-5.6%	-5.6%	-5.6%	-5.6%	-5.6%			-4.3%
	HNDY 37k	선가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전월대비	13.3%	0.0%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21.4%	21.4%	13.3%	9.7%	9.7%	9.7%	6.3%			12.7%
2018	CAPE	33.00	34.00	34.00	34.00	35.00	34.00	37.25	37.25	36.25	35.17	
	PMAx	18.50	18.5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8.92	
	SMAx	17.50	17.5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7.92	
	HANDY (32k)	14.00	14.00	15.00	15.50	15.50	15.50	16.00	15.00	15.00	1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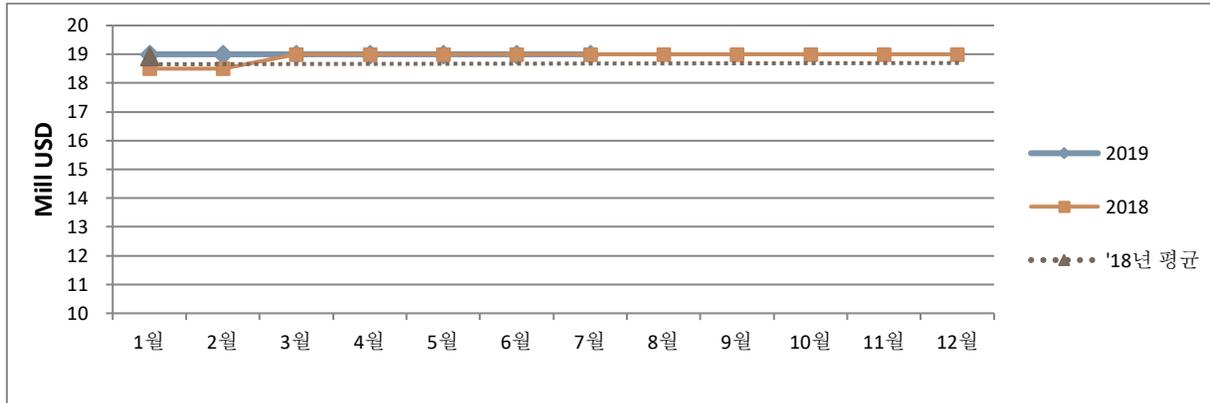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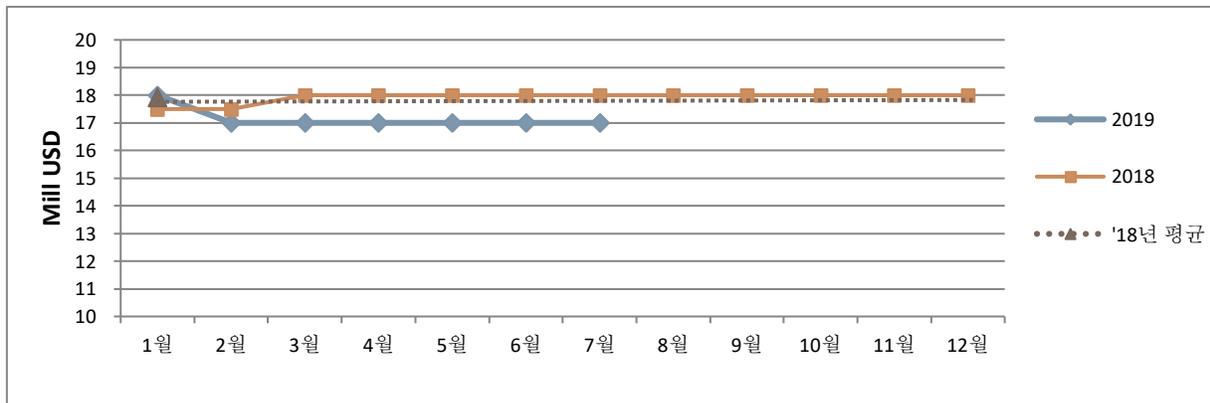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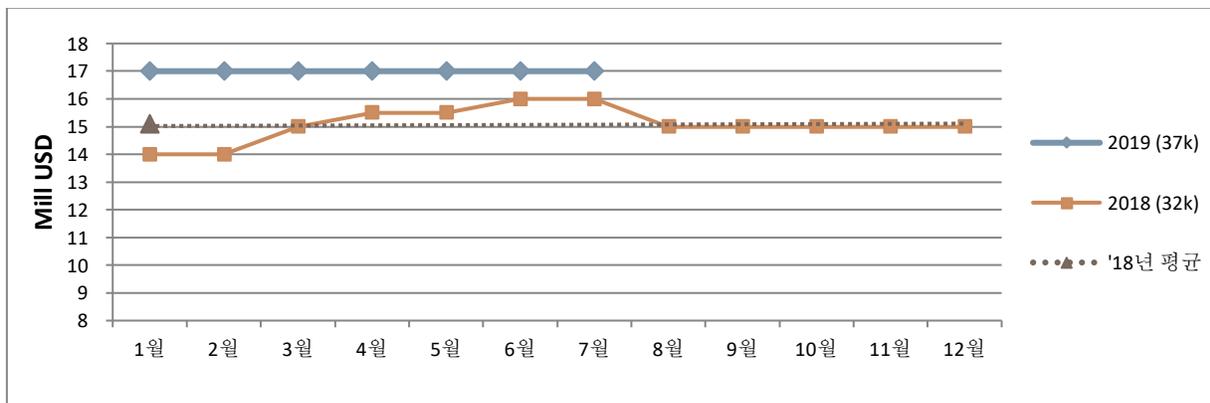
□ Pan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EURO FORTUNE	177,477	2005	JAPAN	B&W		14.5	Greek buyer
BC	MINERAL NOBLE	170,649	2004	KOREA	B&W		13.5	Undisclosed buyer, incl 3 yr tcb USD 13.000/day
BC	TAI PROGRESS	77,834	2004	TAIWAN (JPN)	B&W		7.5	Chinese buyer
BC	ES SAKURA	76,596	2007	JAPAN	B&W		11.5	Undisclosed buyer
BC	CRYSTAL WIND	76,523	2009	JAPAN	B&W		13.1	Greek buyer
BC	BANZAI	74,222	2002	JAPAN	B&W		7	Chinese buyer
BC	SUSE	56,925	2011	CHINA	B&W	C 4x35t	10.7	Greek buyer
BC	PISTIS	52,388	2004	JAPAN	B&W	C 4x30t	7.5	Chinese buyer
BC	ALKYON	36,056	2015	CHINA	WART	C 4x30.5t	12.75	Auction sale, Turkish buyer
BC	DAIWAN BRAVE	34,358	2014	JAPAN	MITSU	C 4x30t	15	Greek buyer, BWTS fitted
BC	GEA	33,562	2005	JAPAN	MITSU	C 4x30t	6.85	Danish buyer
BC	KING CANOLA	28,000	2013	JAPAN	B&W	C 4x30.5t	8.4	Greek buyer (Newport), Log fit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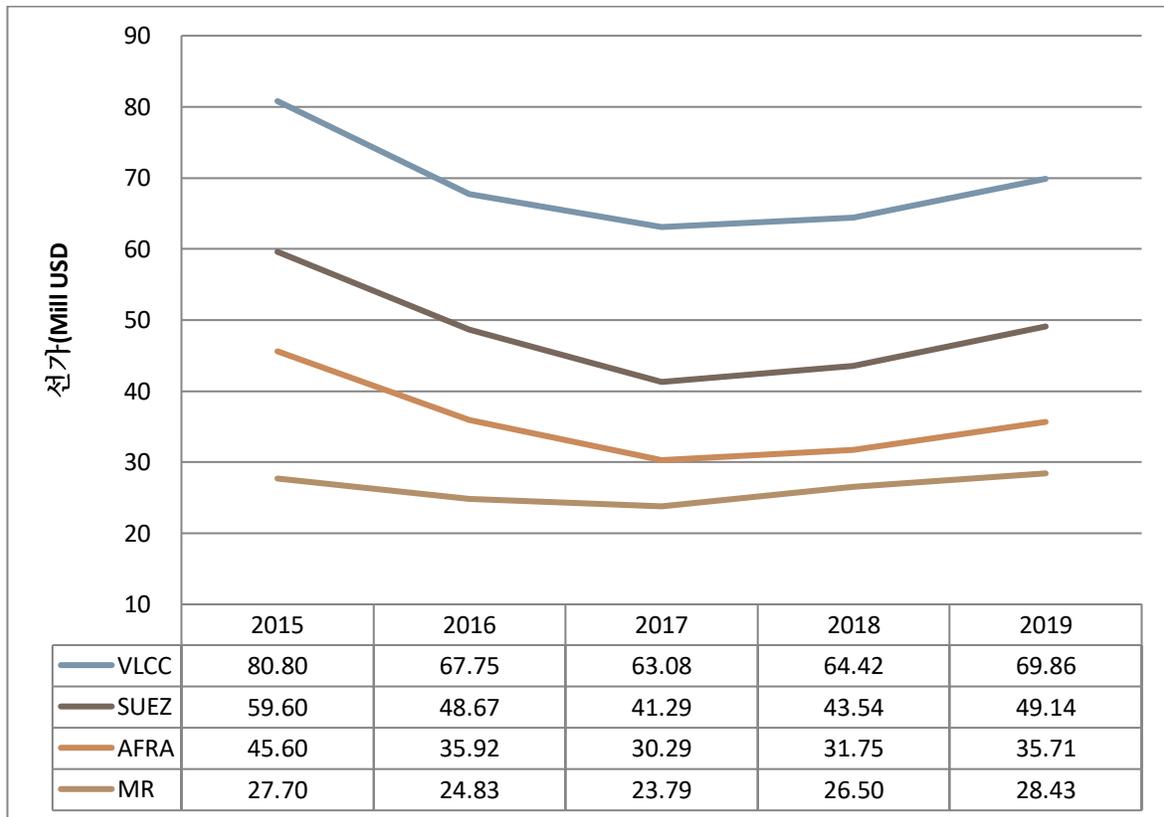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VLCC 310K	80.80	67.75	63.08	64.42	69.86
	9.04%	-16.15%	-6.89%	2.11%	8.44%
Suezmax 160K	59.60	48.67	41.29	43.54	49.14
	17.32%	-18.34%	-15.15%	5.45%	12.87%
Aframax 105K	45.60	35.92	30.29	31.75	35.71
	17.83%	-21.24%	-15.66%	4.81%	12.49%
MR 51K	27.70	24.83	23.79	26.50	28.43
	2.97%	-10.35%	-4.19%	11.38%	7.28%
Chemical Tanker IMO II 13K	12.60	13.92	12.42	11.77	11.04
	-3.08%	10.45%	-10.78%	-5.20%	-6.24%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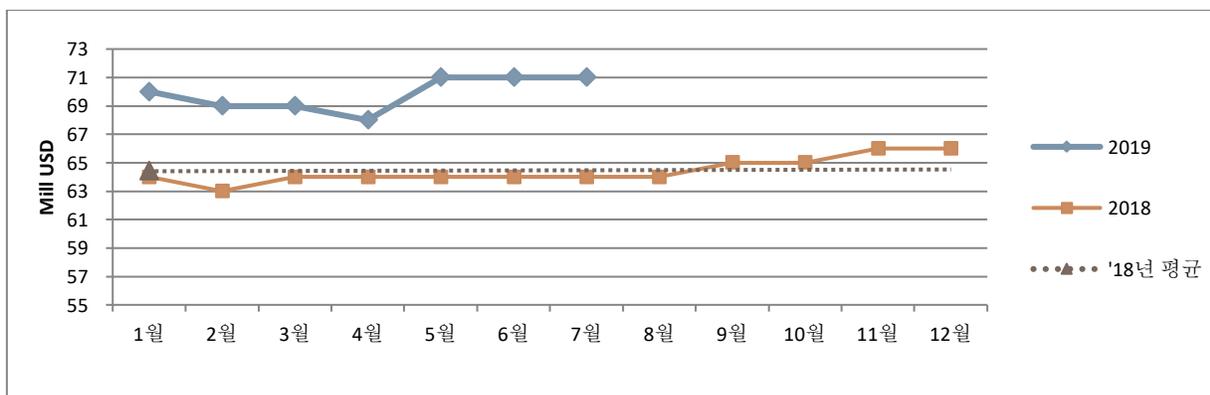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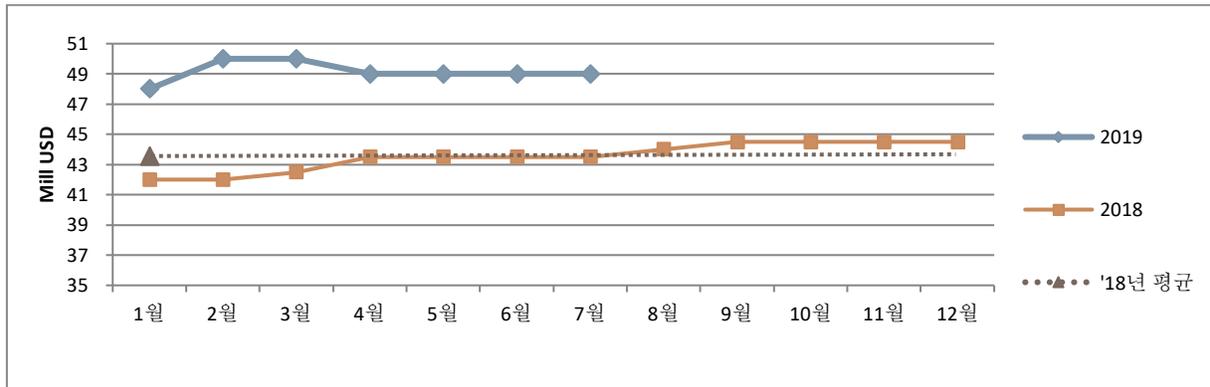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	
2018	VLCC 310K	선가	70.00	69.00	69.00	68.00	71.00	71.00	71.00			69.86
		전월대비	6.1%	-1.4%	0.0%	-1.4%	4.4%	0.0%	0.0%			-
		전년대비	9.4%	9.5%	7.8%	6.3%	10.9%	10.9%	10.9%			8.4%
	SUEZ 160K	선가	48.00	50.00	50.00	49.00	49.00	49.00	49.00			49.14
		전월대비	7.9%	4.2%	0.0%	-2.0%	0.0%	0.0%	0.0%			-
		전년대비	14.3%	19.0%	17.6%	12.6%	12.6%	12.6%	12.6%			12.9%
	AFRA 105K	선가	35.00	35.00	35.00	35.00	35.00	37.00	38.00			35.71
		전월대비	6.1%	0.0%	0.0%	0.0%	0.0%	5.7%	2.7%			-
		전년대비	9.4%	16.7%	12.9%	9.4%	9.4%	15.6%	18.8%			12.5%
	MR 51K	선가	28.00	28.00	28.00	28.00	28.00	29.00	30.00			28.43
		전월대비	1.8%	0.0%	0.0%	0.0%	0.0%	3.6%	3.4%			-
		전년대비	12.0%	12.0%	7.7%	4.7%	4.7%	8.4%	12.1%			7.3%
CHEM IMO2 13K	선가	11.00	11.25	11.00	11.00	11.00	11.00	11.00			11.04	
	전월대비	0.0%	2.3%	-2.2%	0.0%	0.0%	0.0%	0.0%			-	
	전년대비	-15.4%	-10.0%	-12.0%	-10.2%	-6.4%	-4.3%	-4.3%			-6.2%	
2017	VLCC	64.00	63.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4.00	65.00	64.42
	SUEZ	42.00	42.00	42.50	43.50	43.50	43.50	43.50	44.00	44.50		43.54
	AFRA	32.00	30.00	31.00	32.00	32.00	32.00	32.00	32.00	32.00	32.00	31.75
	MR	25.00	25.00	26.00	26.75	26.75	26.75	26.75	26.75	26.00	27.00	26.50
	CHEM	13.00	12.50	12.50	12.25	11.75	11.50	11.50	11.50	11.50	11.50	11.77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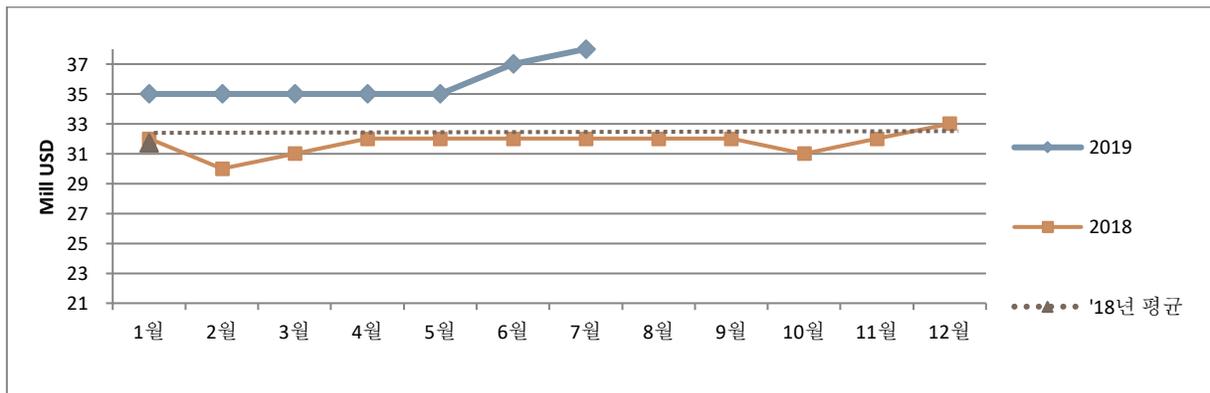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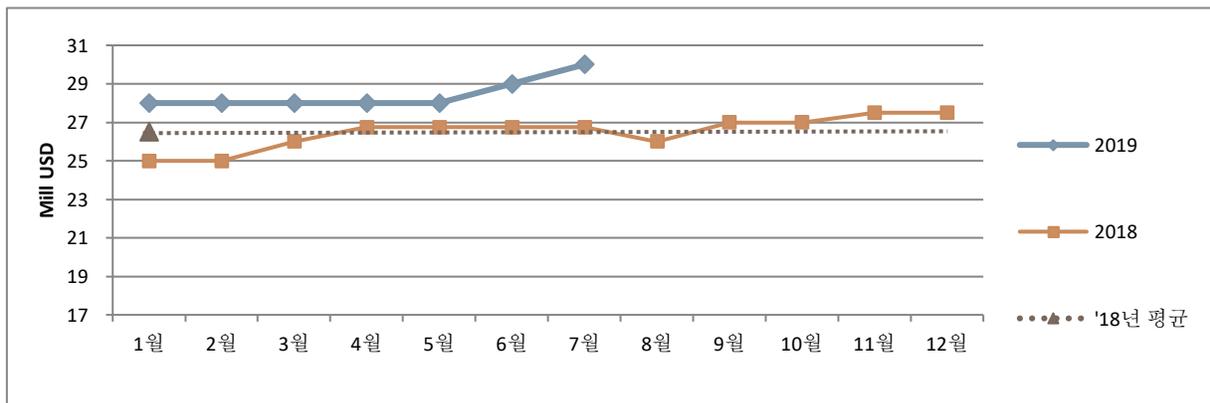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PHOENIX VANGUARD	306,506	2007	KOREA	SULZ		38.7	Greek buyer
TANKER	PYTHEAS	114,809	2004	KOREA	B&W		14.85	Greek buyer
OIL /CHEM	KRISJANIS VALDEMARS	37,300	2007	KOREA	B&W	2&3	11.25	Undisclosed buyer
OIL /CHEM	CHAO SHENG 8	19,908	2012	CHINA	B&W	2	13.8	Chinese buyer
OIL /CHEM	SICHEM PARIS	13,079	2008	KOREA	B&W		8	Undisclosed buyer, incl 2yr TCB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KOTA TEGAP	10,728	2002	KOREA	B&W			3.25	Korean buy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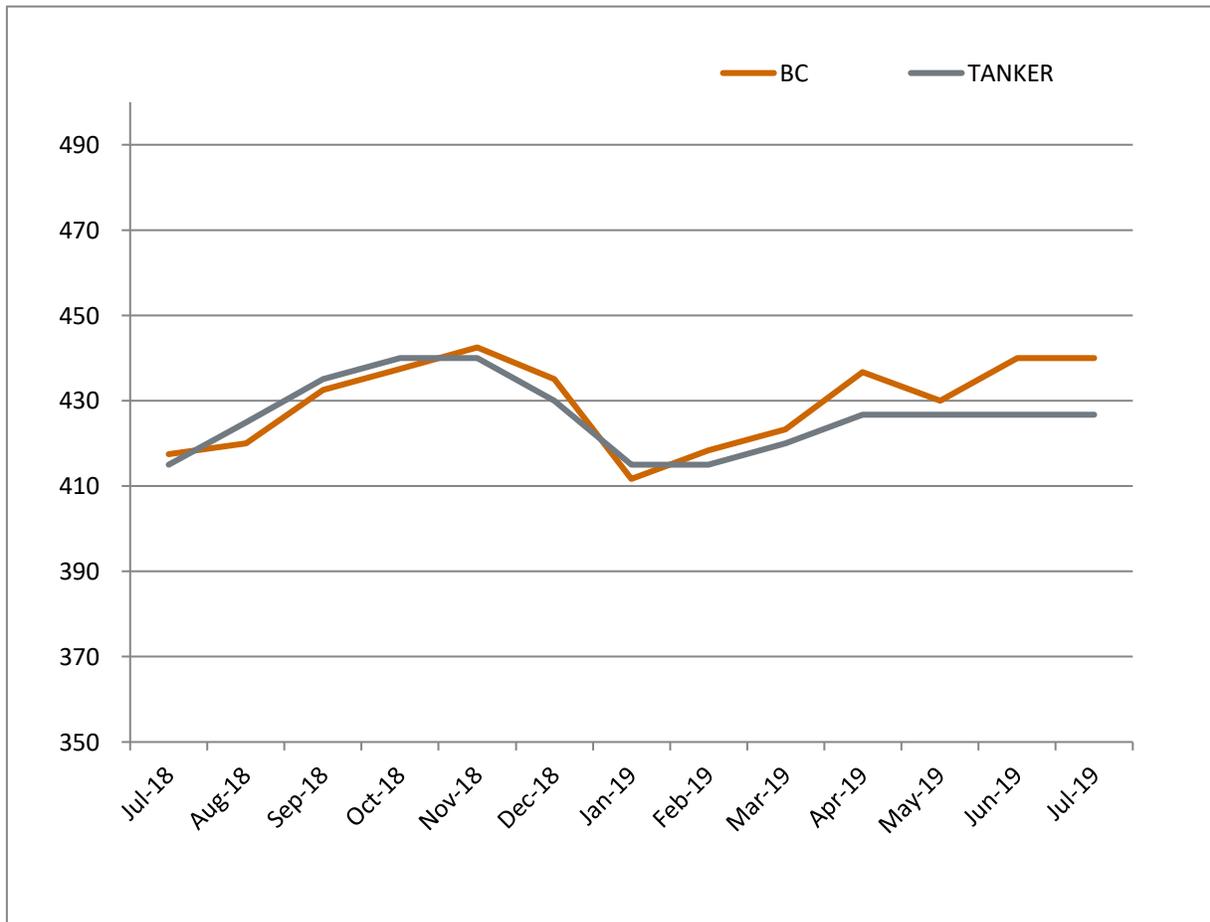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7 평균		2018 평균		2019 평균		2018 년 7 월	2019 년 7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65.21	37.5%	432.92	18.5%	422.38	-2.4%	415.00	426.67	0.0%	2.8%
BC	370.83	38.5%	440.63	18.8%	428.57	-2.7%	417.50	440.00	0.0%	5.4%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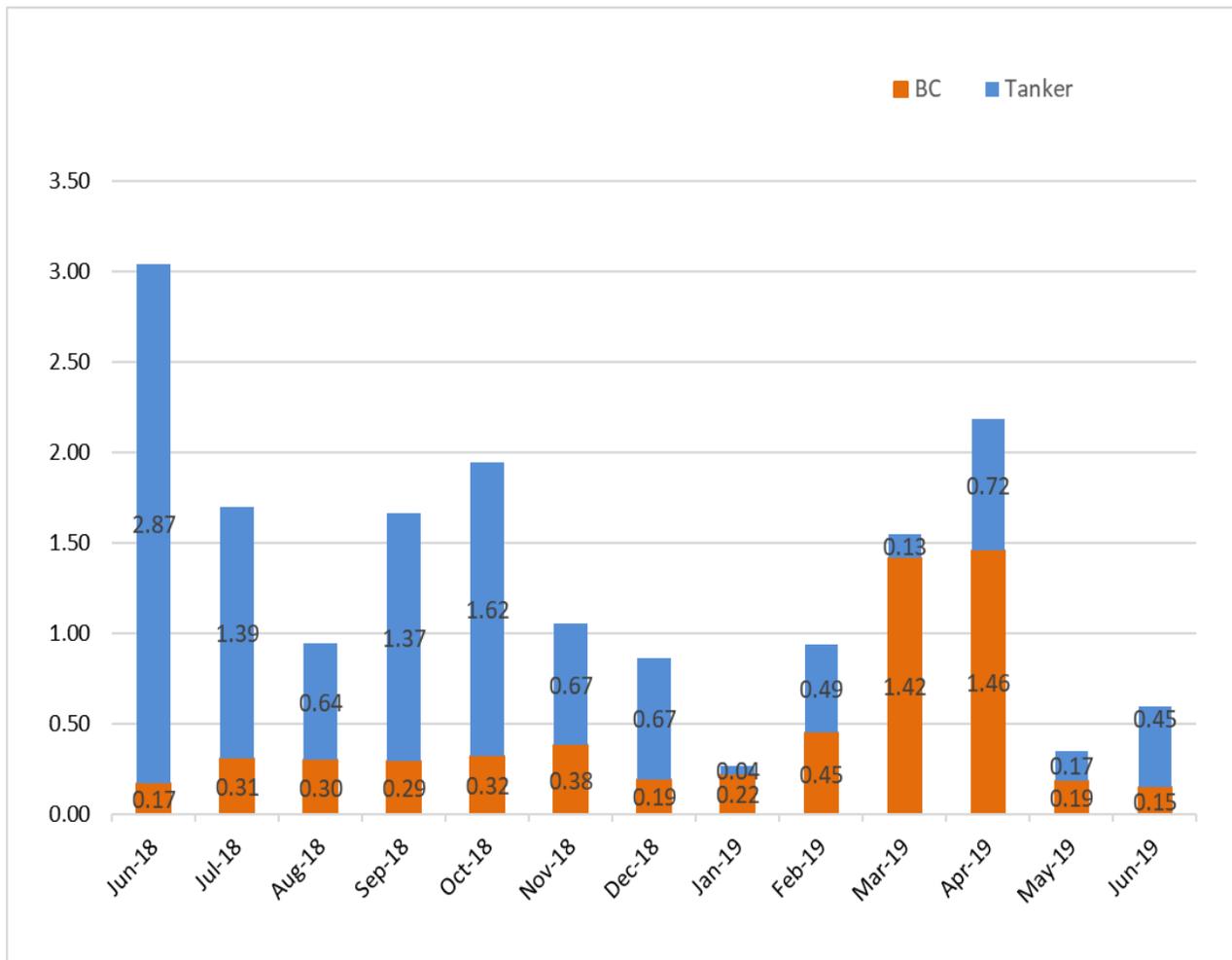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8 년		2019 년 누적			2018 년 6 월		2019 년 6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20.86	195	2.00	9.6%	44	22.6%	2.87	16	0.45	-84.4%	9	-43.8%
BC	4.20	112	3.88	92.3%	57	50.9%	0.17	11	0.15	-12.5%	6	-45.5%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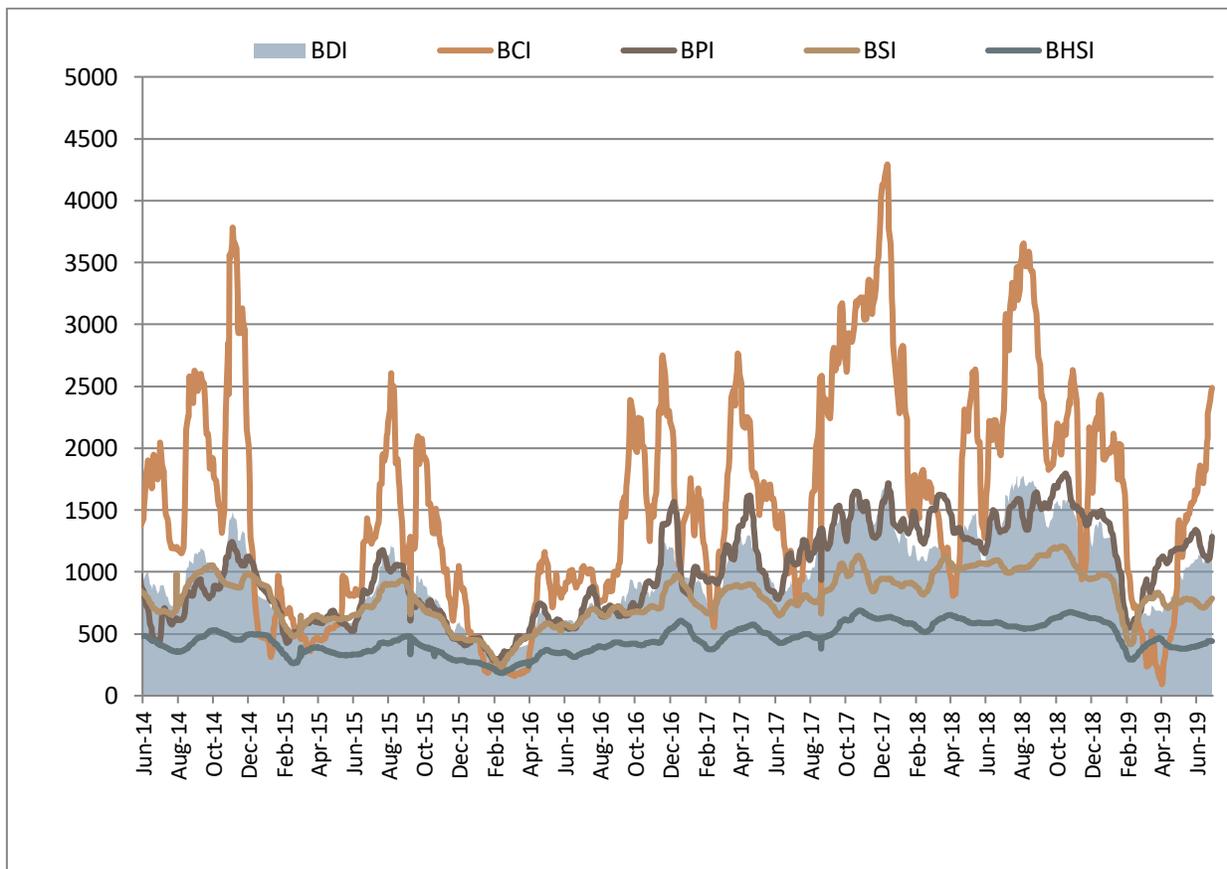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CONT	SINGAPORE BRIDGE	50,863	16,318	2002		B&W	482	India/ Bangladesh in Buyers' Option, incl. spare prop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19-06-28	2019-06-21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1354	1239	▲ 115.00	1774	290
BCI	2488	2278	▲ 210.00	4293	92
BPI	1286	1096	▲ 190.00	1796	282
BSI	787	751	▲ 36.00	1207	243
BHSI	442	440	▲ 2.00	690	18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429.00	▲35.00	392.00	▲23.50	407.50	▲28.00
IFO180	454.00	▲5.50	423.50	▲18.00	460.50	▲25.00
MGO	602.00	▲22.00	582.00	▲27.00	627.50	▲26.50
LSMGO	606.00	▲20.00	575.00	▲16.50	-	-

❖ 기준일 : 6 월 28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19-06-28	2019-06-21	CHANGE
미국 달러	1156.80	1167.70	▼-10.90
일본 엔(100)	1073.35	1087.90	▼-14.55
유로	1315.11	1318.51	▼-3.40
중국 위안	168.08	169.62	▼-1.54

❖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디즈니 영화 배경으로 등장한 이색 해외여행지 추천] – by. STL Gtour

‘디즈니’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흘린 듯 글을 클릭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행복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영상미로 남녀노소의 마음을 사로잡는 디즈니 영화. 디즈니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환상적인 배경을 보면서 한번쯤 그런 근사한 장소를 경험하기를 동경했을 것이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신비롭고 환상적인 여행을 꿈꾸는 여행자들을 위한 이색 해외여행지 추천! 올스테이가 디즈니 영화의 실제 무대가 된 장소 7 곳을 소개한다.

■ <미녀와 야수> 콜마르, 프랑스

영화 <미녀와 야수>의 주인공인 벨이 살던 마을의 모델이 된 장소. 콜마르는 프랑스 북동부에 위치한 소도시로, 화려하게 장식된 집들이 줄지은 동화같은 풍경으로 눈길을 끄는 이색 해외여행 추천지다. 프랑스 콜마르는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 영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등장하는 거리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형형색색의 건물에 둘러싸인 운하가 흐르는 프랑스 콜마르의 구시가는 다양한 장르의 극에서 묘사되는 ‘동화같은 풍경’이기에 더욱 친숙하다.

■ <알라딘> 타지마할, 인도

영화 <알라딘>의 주인공인 자스민이 살고 있는 궁전은 인도를 대표하는 관광지 타지마할을 모델로 했다. 인도 아그라에 위치한 인도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의 황제 샤 자한이 자신이 사랑하던 부인 몸타즈 마할을 기리기 위하여 장장 22년에 걸쳐 지은 대리석 궁전 형식의 묘지다.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이라 불리기도 한다. 아우라를 풍기는 외관도 근사하고 실내도 고급스러운 구조로 되어 있다. 이미 많이 알려진 해외여행 추천 장소이지만, 유명한 만큼 이색적인 매력으로도 꼽히는 곳이니 이색 여행지를 꿈꾼다면 한 번쯤 고려해보자.

■ <신데렐라> 노이슈반슈타인 성, 독일

영화 <신데렐라>의 왕자 차밍이 살던 성으로, 후에 신데렐라가 함께 살게 되는 곳. 흔히 말하는 신데렐라 성의 모델이 된 장소다. 독일 바이에른주 뤼센에 위치한 노이슈반슈타인성은 독일여행의 필수 코스로 꼽히는 명소로, 전세계 관광객의 발길이 닿는 해외여행 추천지다. 알프스의 대자연에 둘러싸인 성을 바라보노라면, 디즈니 영화 속 등장인물이 된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VI. STL NEWS & INFORMATION

■ <백설공주> 세고비아 성, 스페인

영화 <백설공주>에 등장하는 성의 모델이 된 성을 직접 감상하려면 스페인으로 향해 보자.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차로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세고비아에는 <백설공주>에 영감을 준 세고비아 성이 위치한다. 이 곳은 '알카자르'라고도 불리는데 알카자르는 스페인어로 '요새' 또는 '성'이라는 뜻이다. 세고비아성은 절벽 위에 위풍당당하게 서있어 더욱 신비롭다. 성 내부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해외여행지 추천 장소다.

■ <인어공주> 시옹 성, 스위스

영화 <인어공주>의 에릭 왕자가 사는 성의 모델이 된 장소. 스위스 레만 호수에 홀로 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바다를 무대로 하는 인어 공주의 세계관을 잘 나타낸다. 13 세기에 지어진 중세 고성인 옹성의 외관은 동화처럼 낭만적이라 이색 해외여행지 추천으로 꼽았지만, 실제로는 군사 요새로 쓰이던 곳이라고 한다. 스위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꼽힌다.

■ <라퐁젤> 몽생미셸, 프랑스

영화 <라퐁젤>의 주인공인 라퐁젤이 태어난 성의 모델이 된 장소. 프랑스 몽생미셸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바다 위에 떠 있는 듯 신비한 모습으로 유명하다. 1km의 작은 면적의 섬은 수도원과 작은 망루로 구성되며, 섬까지는 독으로 연결된다. 파리에서 당일치기 투어로도 많이 가지만, 거리가 꽤 멀기 때문에 편하게 하룻밤 묵는 것도 괜찮다. 몽생미셸의 낭만적인 밤을 즐기며, 라퐁젤이 성 주위의 아름다운 등불에 둘러싸여 춤을 추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 <겨울왕국> 로포텐 제도, 노르웨이

영화 <겨울 왕국>의 전체적인 배경이 된 장소는 노르웨이 로포텐 제도다. 이곳 이외에도 노르웨이 곳곳에 작품의 무대가 된 장소들이 존재한다. 해가 자주 뜨지 않아 굉장히 춥지만, 대자연의 아름다운 절경과 노르웨이 어부들의 터전을 엿볼 수 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돌풍이었던 겨울왕국. 노르웨이를 방문했을 때 둘러보면, 이색적인 해외여행지 추천 답게 색다른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출처: ZUM 허브줌, 객원작가 김 정]



VII. CONTACT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
 (Personal)

Leo J.M. Jung (정재문 부장)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09
 Mob.010-3273-4008
 snp@stlkorea.com
 leo@stlkorea.com (Personal)

| **RESEARCH**

Jiwon Song (송지원 사원)
 Tel. 070-7771-6417
 Mob. 010-4042-9803
 snp@stlkorea.com
 jiwon@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과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기업/일반 단체 (이현성 부장 Tel. 070-4800-0153)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 070-4800-0151)
 패키지/허니문/골프 (김홍모 대리 Tel. 070-4800-0150)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 010-2777-4027)